

폭우 뒤 해외행...김관영지사 '정치쇼' 논란

완주 전입·해외순방 잇단 구설 수해 복구 중 도지사 해외 일정 복구 지휘 부지사 몫...도민 분노 메가시티 대안속 통합 갈등 격화

최근 김관영 도지사의 갑자기 행보와 이벤트성 즉흥정치가 논란의 한복판에 서고 있다.

김 지사는 전주 완주 통합관련 무리한 완주전입 보여주기 행보에 이어 연일 폭염과 극한호우로 고창, 진안 등이 쑥대밭이 되는 등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해외 나들이"를 강행하는 등 연일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이와 관련, 안호영 의원은 4일 전북 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완주 행정통합을 정치에 이용하면 갈등을 키우게 된다"고 지적한 뒤 최근 주소를 완주로 옮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행보를 두고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고 적격했다.

그는 "일방적 통합 추진으로 민심을 해집어 놓고 있다"며 김 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린 뒤 "지금은 오히려 통합보다 전주 완주 익산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인구 100만 경제권을 구축하는 메가시티 구상을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전주 완주통합 주민투표 부결 시 김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거나 내년 지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말 독일 베를린과 캐나다를 순방했는데 이 시기는 도내에 극한호우가 휩쓸고 간 직후로 농민들과 자원봉사자, 타지역 시민 등 모든 도민들이 재해복구에 안간힘을 쓸 때다.



총리실 테이블 오른 '전북 미래 현안'

4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을 찾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북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까지 내려와 수해복구 일손을 도왔지만 정작 김 지사는 고창군 한 차례 방문외에는 이렇다할 행보를 보이지 않고 해외순방과 서울회의의 참석을 강행했다.

독일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에서 전북도립국악원 등이 공동 주최한 뱃놀이 공연을 관람한 것인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빌미로 한 문화외교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사의 해외순방 기간 대부분 수해 복구현장과 호우 대응회의는 노후석 도

행정부지사가 대신 참석하며 진두지휘하는 흔적이 빛어졌다.

노 부지사는 진안군 수해현장 방문에 이어 3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호우대비 대책회의에 참석해 도 관련부서 및 14개 시군과 함께 집중 호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노 부지사는 재난취약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 점검과 더불어 선제적 주민 대피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등 연일 강행군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라북

도가 해당 오페라극장 관련 재단쪽에서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한 것이며 호우대응 회의의 경우 단계별로 지사나 부지사, 실장 등이 돌아가면서 참석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사무총장 3선 조승래 정책위의장 4선 한정애

정청래 신임 당대표 첫 최고위원회의서 발표 비서실장·정무실장·대변인엔 선거 과정 도운 측근 임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에 대전출신 3선의 조승래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한국노총 출신 4선의 한정애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은 조 의원은 대전 유성구청장 출신인 유성구갑이 지역구인 3선이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은 총청권을 대표하는 중진 정치인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활동했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 의장은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며, 장관 경험도 있다"며 "집권여당인 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



조승래 의원



한정애 의원

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선임배경을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임시전당대회 직후에 비서실장에는 한민수 의원(서울강북구을),

대변인엔 여성인 권향엽 의원(전남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을), 정무실장에는 김영환 의원(경기고양시정) 등 선거과정

에서 자신을 도운 의원들을 임명했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uktimes.co.kr

전북자치도, 양자과학기술 첫 국가공모 선정

전북대 컨소시엄 1위 선정 쾌거 28억 투입 2년간 실증사업 추진 양자통신·컴퓨터 미래 기술 집중

전북자치도가 미래산업 핵심인 양자기술 분야에서 첫 국가사업을 따내며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전북대학교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양자기술은 자연현상의 최소 단위를 활용한 차세대 기술로, 도청 불가능한 양자통신, 초정밀 양자센서, 초고속 양자컴퓨터 등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 간 총 28억 원을 투입해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진행한다.



도는 전북대 컨소시엄이 과기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팀이 주관하며, 기술 상용화 및 실증을 담당할 한솔케미칼과 양자기술의 지역 확산과 수요기업을 매칭할 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엄이 협력한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선정은 전북에서 양자과학기술이 태동하는 첫 사례로 미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 전환을 준비하는 상징적 성과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도, 하반기 저탄소농업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

올해 20ha 이상으로 기준 완화 활동비 ha 당 46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간 물때기, 논물 알개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규모는 지난해 50ha 이상에서 지자체와 농업인들의 요청으로 올해 20ha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 농업인은 이들 단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은 가을갈이를 대상으로 ha당 46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소재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40개 농업법인이 4,959ha 규모로 참여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도 저탄소 영농활동 실천을 통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 의혹' 증폭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제기 사업자 선정 불투명 난개발 우려 땅값 부풀리기 정황도 지적

전주 덕진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사업 자선정 특혜의혹이 시민사회,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돼 향후 행정당국의 진상조사와 사법당국의 수사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최종 시행되면서 전주시의 도시공원 절반 이상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었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마저 난개발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일몰제 판결 이후 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음에도 전주시는 공원부지 매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현재의 공원 축소 위기를 자초했다. 재정 부족

을 핑계 삼는 사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민간 특례 아파트 사업을 제안하는 등 사익 추구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약 10만 제곱미터의 공원 부지를 140억 원에 매입한 농업법인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자체적으로 400억 원대의 기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투자금의 3배가 넘는 막대한 이익으로 전주시는 아파트 허가를 대가로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겠다는 계획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시가 개발권을 주지 않을 경우 수백억 원으로 치솟은 땅을 전주시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조건이 민간 업체들에게 유리한 구조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덕진공원 용지 대비 29.9%를 민간공원 특례아파트 사업부지로 제안했는데 이는 법정 최대치(30% 이내)로, 계획대

로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게 되면 덕진공원의 공공성과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며 "덕진공원 민간공원 특례 아파트는 건지산과 오송제, 체련공원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이미 주변에 도로, 학교, 공동주택, 근린생활 시설 등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숲세권 프리미엄을 극대화하여 높은 분양가를 통한 막대한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상한 토지 거래 정황은 이번 사업의 특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며 "농업법인은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을 영위할 수 없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 농어업경영체법과 충돌하는 농업법인이 포함되었다"고 전제한 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주시의 태도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도 없이 자체 변호사 자문에만 의존하며 불법 가능성을 묵인한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고 주장했다.

또 "사업 부지 내 토지들이 전주시 감

정평가액(400억 원)보다 두 달 만에 수백억 원이 더 많은 880억 원 이상으로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고 심지어 해당 농업법인과 땅을 매입하려던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었다"며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짜고 치기'를 통한 땅값 부풀리려는 꼼수가 의심돼 향후 민간특례아파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토지 보상은 전주시 감정평가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첫째, 개발 면적을 10~15%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재협상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둘째, 사업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시 재선정 절차를 검토하며,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이익(공원 확보 면적)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셋째, 수상한 토지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지사, 국무총리 만나 道 현안 적극 건의

4일 김민석 국무총리 면담 완전 통합·하계올림픽 유치 전북 핵심 현안 지원 요청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기반 구축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북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 전북의 중장기 전략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및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전략기지 조성, RE100 산업단지 선도지역 조성, 주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등을 설명한 뒤 전폭 지원을 건의했다.

또 김 지사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중대한 과제들이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해외홍역 확산 차단 '총력 대응'

해외여행자 홍역 접종 당부 영유아 출국 전 조기 접종 권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홍역 감염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4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65명(7월 24일 기준)으로 이중 70.8%(46명)는 해외 감염 후 입국해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정과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19명의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홍역은 기침과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콧물, 기침, 결막염, 구강 내 반점, 전신 발진 등이며, 면역이 불충분할 경우 환자와 접촉 시 90%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북은 지난 2020년 이후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 해외 교류 증가와 일부 국가(필리핀, 베트남 등) 홍역 발생 증가로 주의가 요구된다. /장정철 기자

해외여행 계획과 함께 홍역 예방접종(MMR) 2회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미접종이거나 접종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을 방문해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이 필요하다.

특히, 생후 1세 미만 영유아는 면역력이 취약한 만큼 홍역 유행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국 2주 전(생후 6~11개월) 조기 예방접종이 요구된다.

여행 중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필수적이다.

홍역 유행 국가 방문 후 발열이나 발진 등 의심 증상 시에는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해외여행 전 홍역 예방접종과 여행 중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며 "도내 홍역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의원, '전주·익산·완주 100만 메가시티' 제안

전주·완주·익산 광역협력 모색 완주군민 71% 행정통합 반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가 완주군민들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전주완주 익산까지 포함하는 100만 메가시티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만들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 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주시 전주시회의원들은 전주·완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행정통합해야 한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주군민의 절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통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최근 ㈜데일리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완주군민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전주완주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반대, 25.9%가 찬성, 잘모르겠다 3.2%로 나왔다. (무선 ARS 전화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 ±4.4%)

통합 반대 주된 이유는 ▲복지혜택 감소(26.8%) ▲협오시설 이전 우려(21.2%) ▲예산 감소(18.1%) ▲지역 소멸 우려(17.6%) 등이 꼽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익산 통합 100만 메가시티 추진을 제안했다. <사진=전북타임스>

전주·완주의 행정통합에는 전주·완주 주민 및 지방의회 등의 찬성이 필요하다. 때문에 완주군민들의 이같은 부정적인 입장은 통합의 최대 난제가 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찬반 논란에 따른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연구원 "해양 연구, 기후위기 대응 핵심 열쇠"

전북 백년포럼 제35강 개최 '해양, 기후변화 완충기능 중심'

지구 에너지 93%를 흡수하는 해양은 기후 변화의 지표인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많은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해양환경 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

로 전북 백년포럼 제35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 나한나 교수(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최신 보고서와 해양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해양환경이 우리의 일상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또 나 교수는 "지구 에너지의 93%가 바다에 흡수될 만큼 해양은 기후 변화의 지표이자 완충 기능의 중심"이라며,

해양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지목했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주요 온실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전 지구 평균 기온도 1.1도 상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해양-대기 상호작용 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언급됐으며, 이때문에 농업, 어업, 해안도시의 인프라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해양 환경 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바다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장애인 보조기기 맞춤형 지원 강화

전북보조기기센터 운영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보조기기센터 운영 및 시군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도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고 일상 속 불편 해소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4억 6,700만원을 투입해 장애인 171명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했다. /김은지 기자

보조기기는 휠체어, 보청기 등으로 등록장애인에게 무상 또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며, 사후 관리와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윤효선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과 권의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6대 예방 수칙!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섭취로 인해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

- 1 첫째**

올바른 손씻기 30초


- 2 둘째**

끓인물 마시기


- 3 셋째**

익혀 먹기


- 4 넷째**

깨끗이 씻어 벗겨먹기


- 5 다섯째**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6 여섯째**

설사·구토시 조리하지 않기



전주시 공무원, 통합 위해 '완주 속으로!'

총 79개 부서 1020명 완주 13개 읍면 찾아 통합 당위성 홍보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완주·전주 행정 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완주군 13개 읍·면을 찾았다.

전주시는 완주·전주 행정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지역 통합 과업을 위해 각 부서별로 완주군을 방문해 회식 및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어진 이 행사에는 4일 현재까지 총 79개 부서 102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완주군 13개 읍면 식당에서 오찬을 갖고, 완주군 오일장 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등 완주 군민들과 접촉하며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직접 발로 뛰며 홍보에 임했다.

또 각 부서별로 완주군청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완주군 13개 읍·면을 찾았다 <사진=전주시>

중 완주·전주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매일 아침 완주와 전주가 만나는 주요 교차로에서는 출근길 통합 캠페인

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출근길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

면) △송전동 송전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상양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총 1543명의 시민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지역 28개 민간단체 회원을 포함한 총 450여 명의 시민이 호남제일문광장에 모여 통합을 향한 열의를 담은 대규모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완주를 찾고 완주군민들과 소통을 나누며 완주 군민들의 우려에 대한 해소와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발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들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재)전주관광재단, 전주 관광 선도 인재 채용

사무국장·관광콘텐츠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총 3명

전주시가 '전주관광재단'을 이끌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하기로 했다.

(재)전주관광재단은 오는 18일 까지 사무국장과 팀장 2명(관광콘텐츠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총 3명을 채용하기 위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사무국장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 경력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실무 경력

등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팀장의 경우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응시원서와 제출 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주관광재단 관계자는 "전주시의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콘텐츠의 고도화 및 다각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 '2025년 8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 3~3.5% 이자보전 지원

전주시는 2025년도 8월분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송업(시내버스·법인택시)·지정음식업·재생재료수집 및 판매업·벤처기업·기술우수기업·중소수출업체·사회적기업·지식서비스산업업체 등이다.

업체별 최대 3억 원(소상공인은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5000만원 이하

신청 업체는 신청 금액 전액 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전주지역 9개 은행(전북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에서 취급하며, 최대 3.5% 이자보전율이 적용된다.

세부적 사항으로 일반 기업은 3.0%,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기업, 우수향토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등은 3.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2년, 1회 연장 시 총 3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fanht@korea.kr) 또는 방문 및 우편(전주지우편번호 164, 3층 기업지원사무소)을 이용하면 된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재정비

총 84곳 제한 지역 신규 지정 2차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전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현실 여건에 맞춰 재정비했다.

전면 재정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8월부터 새롭게 적용·운영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은 도시환경 반영, 교통 여건과 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 개선 효과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정됐다.

시의 공회전 제한 지역 재정비는 시민 건강보호·대기오염방지·폐적한도시환경조성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대규모점포(10곳)와 의료기관(17곳) 등 총 84곳의 제한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반면 시는 폐업 또는 이전, 미운영 상태,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차고지 등 기존 128곳에 대해서는 제한

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전주시 버스터미널과 대형차고지 등 기존 14곳 제한 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신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장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며 '홍보, 안내판 설치, 행정 제도'를 통해 운전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전망이다.

단속시 제한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1차 적발 경고 조치, 2차 적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대기 온도가 영상 5°C 미만이거나 영상 25°C 이상이면 5분까지 공회전이 허용되며, 0°C 이하이거나 영상 30°C 이상일 때는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 발의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원안 가결

도로 '신설·보수·굴착'에 따른 시민 생활불편 최소화

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송전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



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민 알권리 보장에 대한

것으로 도로의 '신설·보수·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조례내용은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

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최명권 의원은 "도로 공사에 의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함께 '소통 행정'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총력

폭염구급대 운영 강화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폭염 속 온열질환자 발생을 대비해 폭염구급대 운영을 강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주지역은 지난 주부터 낮 최고기온이 33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2~4도 높여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야외작업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완산소방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관내 구급차 6대를 폭염구급대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 얼음조끼, 생리식염수, 전해질음액, 물스프레이 등 폭염대비 9종을 보강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

면서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 질환으로는 일사병, 열사병, 열경련 등이 있다.

전주완산소방서 관계자는 "폭염 시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물을 마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해야 한다"며 "특히 야외작업을 하는 시민들은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하경옥 구급팀장은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전문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예방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치매노인·아동 실종 예방 공동 네트워크 구축

예수병원(신촌식 병원장)은 치매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화산지구대-예수병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치매노인·아동 등의 실종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경찰과 도내 대형병원의 협력을 통해 치매노인·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한 공동 네트워크 구축 체계를 통해 공동체 차이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고령층, 아동 대상 배회감지기 및 지문 사전등록 안내 △공동 현장 매뉴얼 작성 및 비상연락망



예수병원(신촌식 병원장)은 치매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화산지구대-예수병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예수병원>

구축 △취약지점에 CCTV 설치 등이 있어, 실종 예방부터 조동대응, 발생 후 대처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가고 있다.

예수병원 신촌식 병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병원의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에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산지구대 윤인석 대장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맞춤형 치안정책 펼치고자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중기부, 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 최소 2,700억韓 투자

4개 분야 6개국
총 13개 운용사 선정
2.4조원 규모 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4월 25일 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 결과 13개 운용사를 선정해 2.4조원 규모 펀드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펀드는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펀드에 모태펀드가 출자해, 모태펀드 출자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세희 74개 펀드, 총 12.3조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13년부터 글로벌펀드를 운영해 왔으며, 652개 한국 벤처·스타트업이 1.3조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으며 토스, 당근마켓, 리벨리온과 같은 글로벌 유니콘 탄생에 기여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출자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으로 증액 △AI, 기후테크, 세컨더리 분야 신설 등 투자규모 확대와 출자분야를 다변화했다.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출자 공고(1월) 후 신청·접수(4월)를 받아 서류심사, 현장실사(4~6월) 및 출자심의회(7월말)를 거쳐 최종적으로 13개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운용사 선정 시 펀드 결성 가능성, 투자전문성 및 한국투자 등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선정된 운용사는 분야별로 일반 10개, AI 1개, 기후테크 1개, 세컨더리 1개이며, 지역별로는 미국 TTCP, 프랑스 Jolt Capital, 일본 DCI Partners 등 미국,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6개국의 벤처캐피탈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1,700억원을 출자하며, 펀드결성규모는 A펀드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기업 의무 투자금액도 역대 최대규모인 2,700억원 이상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글로벌펀드 선정결과를 6일(화)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선정공고 이후 6개월 이내 펀드를 결성해야 하며 기간 내 미결성시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간 결성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글로벌펀드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투자유치 효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점에서 한국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기부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글로벌펀드를 지속 확대해 우리 벤처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와 글로벌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익산원예농협, 농협생명 신상품 전북 1호 가입

다양한 재해 보장
'NH모두안심재해보험' 출시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4일 출시된 농협생명 신상품 'NH모두안심재해보험(무)'에 익산원예농협 김봉학 조합장이 전북 지역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협생명 'NH모두안심재해보험(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으로, 재해사망과 재해장해 등 주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3만 원 지급으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인 상품이다.

여차 60세 기준 월 2천 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와 함께 인수심사 절

차를 간소화해 누구나 쉽게 가입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김봉학 조합장은 "이번 신상품은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농작업 외 재해에 대한 사고보장이 가능해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광수 농협생명 전북총국장은 "농협생명은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이번 상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농협측 조합장을 대상으로 릴레이 가입행사를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안전 보장을 위해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는 물론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진흥설비(주), 13년 연속 전북 기계설비공사 1위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 시공
능력평가 결과 공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유제영)는 지난 7월 31일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공시하며, 도내 건설업계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평가결과 도내 기계설비·가스공사사업 전체 시평액은 358개사, 11,574억원으로 전년(10,271억원) 대비 1,303억원 증

가했다.

주력분야별로는 기계설비공사 10,591억원으로 전년(9,411억원) 대비 1,180억원, 가스시설공사(제1종)으로 1,519억원으로 전년(1,294억원) 대비 225억원으로 주력분야 모두 증가했다.

이는 고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건설 위축 등 부정적 외부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플랜트 및 산업설비 분야의 유지보수 공사 수요 증가, 지속 가능한 재무·기술 역량 강화, 보수적 경영구조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스마트설비 도입

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공사 실적 증가와 함께, 도내 중견·중소기업들이 이에 발맞춰 기술인력 확보와 설비 고도화를 추진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공사 업체별 순위는 진흥설비(주)가 시평액 734억 원을 기록하며 2013년부터 1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유)동성엔지니어링이 228억 원으로 2위, 금전기업(주)은 205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체별 순위는 (유)상아이엔지가 85억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지켰다. (유)일진엔지니어링과 (유)신우엔지니어링이 각각

77억 원, 55억 원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유제영 회장은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시공능력 향상뿐 아니라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원 제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요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회원사들의 안정적 경영과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지노협 "지역금융 없이 지역균형발전 없다"

지역금융 활성화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회장 정원호, 이하 지노협)가 지역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 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 수십년 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미비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더라도 지역금융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밝힌 것에 공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필수라는 것.

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여타자를 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 우대와 지방 이천 공공기관의 금융거래도 지역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 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며 "이는 지역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고리"라고 설명했다.

지노협은 지역은행이 처한 이중규제 미비로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더라도 지역금융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밝힌 것에 공감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필수라는 것.

/김은지 기자

전북은행, 다문화가족 지원 성금 1억원 기부

다문화가정 아동 여름방학
'다다캠프' 기부금 전달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전주지역 다문화가족들이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1억원을 후원했다.

4일 전주시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이해경 전주시가족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위한 여름방학 '다다캠프(다채로운 다문화캠프)'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JB금융그룹이 지난 2023년부터 핵심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다캠프는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문화

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120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캠프에 참석했다.

올해 여름방학 캠프는 정읍에 소재한 JB금융그룹 연수원인 아유휴 캠퍼스에서 전주시 가족센터와 연계해 전주지역 다문화가정 아동 8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JB플랫폼 금융교육 △진로 탐색 프로그램 △액티비티 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험 교육을 통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전주시와 전주시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다



전북은행이 전주지역 다문화가족들이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1억원을 후원했다.

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쳐며 지역사회에 포용적 기피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개인정보 보호 우수성 인정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 취득
2028년 7월 31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대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우수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인정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협회(OPA)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PLUS)를 신규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8년 7월 31일까지다.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는 홈페이지와 그 시스템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보호조치 이행 수준 등을 종합심사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는 이번 인증에서 △개인정보의 생명주기(22개)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13개) △개인정보의 물리적 보호조치(6개) 등 총 4개 영역 60개 항목의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인증 취득은 공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려 안전한 보안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농업기술원, 맥류종자 전항목 100% 합격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최준열)은 2025년산 맥류종자에 대해 생산관리 및 순도유지 강화를 추진한 결과, 올해 실시한 종자감사에서 전(全)항목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합격한 종자는 향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거쳐 국립종자원으로 이관돼 전국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파종 단계부터 맥류 품종별 생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확 후 선별 및 저장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특히 종자의 균일도를 높이고 품질편차를 최소화해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확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장은 "체계적인 생산관리와 순도유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로 종자감사 전(全)항목에서 100% 합격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고품질 맥류종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주상공회의소, 디지털 환경 대응 챗GPT 교육

AI 실무 연결 업무 역량 강화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경태)는 4일 회원기업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챗GPT 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상공회의소 6층 컴퓨터실에서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인공지능(AI)을 실무에 연결시키며 업무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이날 이현구 교수(AI 융합 비즈니스 포럼 회장)가 강사로 나서 △ChatGPT

와 생성형 AI의 개요 △다양한 생성 AI의 사용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나만의 GPT 만들기 △비즈니스 적용 사례 등 실제 업무 내용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실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들의 디지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북대 글로벌캠퍼스 “굳이 남원에?”

일부 대학 구성원 사회 문제 발생 우려 “본캠에 집중했으면”

전북대학교가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를 활용한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에 본격 시동을 걸었지만, 일각에선 인구 소멸지역에 캠퍼스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대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하는 남원 글로벌캠퍼스는 총 604억 원이 투입되며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됐던 지역경제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1000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

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유령 도시가 된 지역 주민들은 남원 글로벌캠퍼스 설립에 지역 발전이 될 거라는 기대에 활기를 찾았다.

지역 주민 강 씨는 “해 떨어지면 불빛 하나 없었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 유령 도시 같았다”며 “대학 재생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이 활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대 일부 구성원들은 생각이 달랐다.

전북대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역 소멸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전북대 본교 캠퍼스가 있는 전주시 또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굳이 남원에 하는 이유

를 모르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하겠다고 본캠에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대에 재직 중인 B 씨는 “대학 존재 여부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이미 검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문제도 많다. 특히나 지방에선 외국인 차별화가 심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대 관계자는 “전국에 30곳 넘는 폐교 대학이 있지만, 지역과 함께 캠퍼스를 재생하려는 시도는 남원이 유일하다”며 “본캠에 글로벌 대학을 유치

하는 게 대학 입장에서 좋지만 서남대 폐교 이후 침체된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했다”며 “대학 본부는 학과 운영과 유학생 정착을 포함한 캠퍼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대는 현재 남원시와 협력해 서남대 부지 리모델링, 교육시설 확충, 행정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26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의대생들, 1년 반만에 학교 복귀 4주간 여름 특별학기

전북대 의대생들이 1년 반 만에 학교로 복귀했다.

전북대학교는 4일부터 봄학기 미복귀 학생들을 대상으로 4주 동안 여름 특별학기를 시작했다.

특별학기는 예과와 분과 1·2학년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활용한 압축 수업을 진행하고, 졸업을 위해 임상 실습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의학과 3·4학년들 또한 특별 학기를 통해 보충수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에서 대면 수업을 받

고 있다.

전북대는 내년 2월까지 강의를 이어가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3월에는 정상적으로 다음 학년으로 진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특별학기는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지만, 예과는 비대면 수업이 많고 분과는 실습수업이 포함돼 대면 수업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특별학기를 이수해야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수능 D-100 핵심 전략 안내

취약 개념·문제 유형 보완 생활리듬 조정 등 중요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11월 13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남은 기간 수험생들이 실천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했다.

국어·수학·영어영역에서 선택형 구조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은 △수험생 증가 △의대 정원 축소 △전공자유선택제 강제 등 입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략적인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시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가짜 공부를 꼽았다.

많은 수험생이 자신의 학업 수준이나 방법에 대한 분석 없이 온라인강의나 새로운 공부법만 탐색하는 ‘가짜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보다는 기출문제 분석, 연계교재 학습, 취약 개념과 문제 유형 보완 등이 중요하다.

햇공부는 단기 위안을 제공할 뿐 성취감과 체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며 학업이 자신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지 약점을 채우는지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수험생의 대입 전략에 따라 수능 대비도 달라져야 한다.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수험생이라면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핵심 변수인 만큼 특정 과목에서 목표 등급을 확보를 위한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수험생은 전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균형 있는 학습과 실전 감각 유지가 관건이다.

단 대학별, 모집유형별 전형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전형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원 전략을 기반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

이 시기부터 생활 습관도 수능 당일 시간표에 맞춰 조정하고, 체력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피로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수능 당일 컨디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점심 직후 진행되는 만큼 생활 리듬을 조정해야 하며, 지나친 휴식은 오히려 불안감을 키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 부안교육지원청, 초등생 ‘영어 체험 연수’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년 부안교육지원청 초등학생 영어 체험 연수’를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과 협력해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주대 학교 캠퍼스 내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부안교육지원청의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부안 지역의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및 기숙사에서 13박 14일 동안 집중적인 영어 체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은 전주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의 원어민 교수진과 영어 전공 재학생들이 참여해, 전면 영어 몰입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

전주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장인 토드 모리스 교수는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실생활에서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남원시, ‘한중 문화교류 연주회’ 성료

청소년합창단-중국남경전매대학합창단, 무대 선배

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예술감독 김종희)35명과 중국남경전매대학합창단29명이 함께하는 ‘한중 문화교류 연주회’가 지난 1일 오후 7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국경과 세대를 넘어 음악으로 우정을 나누는 문화교류의 장으로, 전통 민요부터 세계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중국 민요 모리화, 한국 아리랑과 강강술래, 마지막 연합합창 Dynamite(BTS) 등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꾸칭취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 총영



사는 “조선의 임진왜란, 일제침략시에도 한국과 중국은 공동의 적과 맞서 싸웠다”며 “우의와 협력을 강조한 뒤 ‘한 중

간 민간, 청소년교류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교대, 늘봄학교 강사연수 최종평가 우수 등급 획득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늘봄학교 강사연수 사업(전략·제주권) 1차년도 최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늘봄학교 1차년도 강사연수사업은 4개 권역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전주교육대학교는 전북권역의 주관대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전주교육대학교는 최종 평가에서 연수생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5.9%’라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박병춘 총장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많은 연수생들의 참여로 1차년도 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여자 역도 문민희, 국제대회서 메달 획득

은메달·동메달 수확

전북 여자 역도 에이스 문민희(하이트진로)가 국제대회에서도 맹활약하며 선전을 펼쳤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및 한중일국제전선대회에서 문민희가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69kg급에 출전한 문민희는 인상에서

97kg을 들어올려 은메달을 획득했고, 용상과 합계에서는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중일 친선대회에서도 문민희는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모두 은메달을 수확했다.

하이트진로 역도팀 염옥진 감독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 전북 역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강한 여름나기

시원하게 지내기

- ☑ 샤워 자주 하기
- ☑ 험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 외출 시 햇빛 차단하기 (양산, 모자 등)

물 자주 마시기

-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강도 조절하기

매일 기온 확인하기

- ☑ 기온,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익산시, 초등학생 대상 '창의융합 캠프' 미래기술 역량 ↑

익산시가 여름방학 지역 아동의 창의력과 미래기술 역량을 키우는 특별한 체험 교육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더봄'에서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 대상 '창의융합 캠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시 코딩 체험 △레고(GO!) 크리에이티브 캠프 등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잇따라 진행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모빌리티 도시' 프로그램은 초등 4~6학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남중동 '어울림플랫폼'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블록코딩을 활용해 자율주행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신호등 인식, 자율주차 등 실습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게 된다.

이어 8월 12~13일에는 지역문화를 접목한 융합형 교육 '레고(GO!) 크리에이티브 캠프'가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개최된다. 초등 4~6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레고를 활용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익산의 주요 유적지를 구현하고, 독서 기반 스토리텔링과 로봇 코딩 대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방과후학습관 '더봄'의 여름방학 페스티벌 참여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익산시 누리집 내 다이로움 소식에 게시된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교육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6~25일까지 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군산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상징 및 검증 완료한 개별주택 343호와 공동주택 704호에 대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중축, 멸실, 분할합병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산정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서울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지역 간 이해 넓혀

정읍과 서울의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서로의 도시를 오가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우호도시인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난 7월, 각각 1박 2일 일정의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먼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정읍 청소년 31명이 서울을 찾았다. 이들은 코엑스몰 내 별마당도서관과 K-POP 관련 북향문화공간인 '케이타운 포 유'를 방문하며 서울의 문화와 산업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서울 청소년 31명이 정읍을 방문했다.

참가자들은 구절초지방공원의 짙아이어를 타며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었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정읍농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정읍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오롯이 느꼈다.

참가자들은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얻고,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의 지역 간 교류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 교류를 통해 미래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비리 씨앗 뽑겠다"

전 직원 골프 특별 금지령 비리 고리 전면 차단

"비리의 씨앗을 뽑지 않으면 나무가 됩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최근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비리의 고리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정 시장은 4일 예정된 휴가 일정을 변경하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에서 시작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으로 모든 직원이 충격을 받았고,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려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 시장은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정현을 익산시장이 최근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비리의 고리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사진=익산시>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약된 골프 일정이 있다면 모두 취소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운동에 쓰길 바란다"며 "익산에서는 골프가 비리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시민과 외부에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익산시는 이번 특별 금지령을 전 직원에게 즉시 하달했으며, 강력한 점검

과 공직기강 강화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간부 모시기 금지(내부 청렴 강화) △청년정책 로드맵 제시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 내실화 △여름철 기습 폭우 대비 △전 직원 여름휴가 운영 등 현안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

23년·24년 연매출액 3억 이하로 기준 완화

군산시가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현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에는 지원 대상을 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23년 또는 24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를 기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23년에 비해 24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24년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 회복 양상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도별 매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1인 1업체만 가능하며,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일시 지원하고 있다.

7월 초 기준으로 약 3,4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2025년 8월 1일) 이전 △휴·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 △유형업소·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장

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군산시장 누리집 접속 통해서도 신청 가능)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이때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임대료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산시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마다 매출 규모가 달라지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대상 기준을 확대했다"라며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장 누리집 도시·공고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행정력 전북도서 가장 빛났다!

2024년 상급기관 평가 총 55개 분야 전북 1위

정읍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총 55건의 상급기관 평가 수상 실적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가장 뛰어난 행정성적을 거뒀다.

시는 중앙부처 주관 평가에서 25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평가에서 26건, 기타 외부기관에서 4건을 수상했다. 이로써 시는 총 55개 분야에서 표창·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전반에 걸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다.

특히 이번 수상 분야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적극행정, 청렴도, 조직 운영, 재정성과 등이 포함됐다. 일부 분야에서는 인센티브까지 확보하며 시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성과는 부서별 고유 업무를 넘어 시민 중심의 실용 행정,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일관된 혁신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학수 시장은 "계속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읍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올해는 70개 이상의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14년 만 결실

동부권 주거·상업·교통 균형 발전 기반 다져

익산시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새로운 동부권 균형 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14년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었다. 14년 만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며 주거·상업·교통이

어우러진 균형발전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 최초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 구상 이후 행정 절차를 거쳐 2020년 전복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22년 6월 착공 이후 3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다.

사업 부지는 29만 5천㎡(약 9만 평)

규모로, 주거용지·상업용지와 함께 도로,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이 새로 들어섰다. 특히 라온프라자비트·신재생자원센터 사이 미개설 구간이었던 마한로가 개통돼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기반시설 유지 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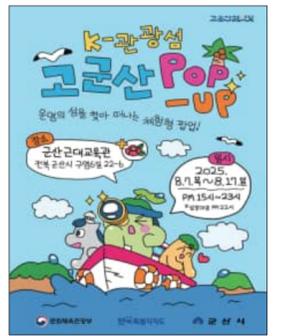
"K-관광섬 고군산섬잇길로 초대합니다" 7~17일까지 팝업 행사

군산시가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근대교육관과 월명동 일대에서 고군산군도 K-관광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고군산섬잇길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

시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간과 맞물려 'K-관광섬 고군산섬잇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K-관광섬관에서 말도, 명도, 방축도로 가는 가상 여행을 시작하면서 섬을 간접 체험하며 '고군산섬잇길' 브랜드를 기억하고 섬 여행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극 받게 된다.

프로그램은 장자도 매표소에서 '나만의 운명섬 타로카드'를 뽑아 섬 승선권을 발권하는 체험으로 시작된다. 웰컴 음료를 받은 뒤 K-관광섬관에 입장하면 옥도면 조항실에 서 각자의 섬에 해당하는 디퓨저를



받는다. '백패킹' 명소 관리도에서는 캠핑 포토존과 OX 퀴즈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명도에서는 동아줄 당기기 체험, 말도에서는 황금어장 낚시게임을 진행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팝업을 통해 고군산섬잇길 브랜드와 매력을 알리고, K-관광섬에 대한 관심과 방문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집중 점검

11곳 운영실태 점검

정읍시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위해 관내 자원화 조직체 11곳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을 통해 각 조직체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지, 처리된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퇴비와 액비의 품질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살포 시기와 양, 대상 지역의 적절성 여부도 핵심 점검 항목이다.

또한 각 조직체가 관련 법령과 운영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체계나 민원처리 절차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필요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성료

전국 유도 동호인들의 뜨거운 한 판 승부가 펼쳐진 '2025 백제왕도 익산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대회에는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전국에서 약 1,7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1~2일은 개인전, 3일은 단체전이 진행돼 다양한 나이·체급의 선수들이 기량을 펼쳤다.

이에 앞선 7월 30일과 31일에는 '2025 하계 심판 및 지도자 감습회'에

150명이 참석해 심판 규정 교육, 지도자 시범 등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도 이뤄졌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 약 2,500명이 익산을 방문해 지역에도 활력을 더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익산시를 찾아주시는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익산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JK글로벌위드인 사람과함께, 군산시에 장학금 전달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

군산시는 '(주)JK글로벌(대표 김기웅), (사)위드인 사람과함께'가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드림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드림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JK글로벌 김기웅 대표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생

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게 돼 진심으로 기쁘다.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상면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민준 군산시장은 "장학금을 기탁해주신 JK글로벌 대표님과 도움을 주신 (사)위드인 사람과 함께 대표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산시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강한 성장과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 꿀고구마, 롯데웰푸드 브랜드화

고창-행안부-롯데웰푸드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 13종 제품 출시 예정

고창 꿀고구마가 들어간 카스타드, 마가렛트 등 다양한 제과 제품이 출시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된 이벤트가 열린다.

고창군이 4일 오전 고창군 웰파크호텔에서 행정안전부, 롯데웰푸드와 '지역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배성우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장을 비롯한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고창군과 롯데웰푸드는 행안부의 지원 아래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특화 제품 출시 △공공 마케팅을 통한 고창 대표 특산물 인지도 제고 △롯데웰푸드 브랜드를 연계한 고창군 관광지 및 국가유산 홍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군은 전국 고구마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전북 최대 규모 고구마 산지다.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자란 고창 고구마는 일명 '꿀고구마'라고 불릴 정도로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장점이 다. 특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의 청정 환경은 롯데웰푸드가 추구하는 건강한 먹거리 이



고창 꿀고구마가 들어간 카스타드, 마가렛트 등 다양한 제과 제품이 출시되고, 지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연계된 이벤트가 열린다. <사진=고창군>

미지와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웰푸드는 올해 고창 고구마를 활용한 계절 한정 13종의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패키지에도 '고-참(참) 꿀맛이구마'라는 재미있는 문구를 삽입해 달콤한 고창 꿀고구마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고창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팝업 부스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창군 현지에서는 선운산, 고창읍성 등 다양한 관광지 및 문화유산과 연계한 샘플링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창의 유명 카페들과 협업한 프로모션도 준비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고창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웰푸드는 지난해부터 행안부와 함께 맛있는 대한민국 상생 로드를 시작했다. 첫 프로젝트로 충남 부여군 특산물 알밤을 활용한 다양한 '부여 알밤' 시리즈를 지난해 9월 선보였다. 계절 한정 제품으로 약 3개월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큰 인기를 끌면서 대다수 품목이 한 달여 만에 모두 판매돼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7일까지 아동 대상 힐링 영어캠프

글로벌 역량 강화 기대

부안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서면에 있는 운호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번째 개최하는 이번 캠프는 운호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최은숙) 주관으로 관내 아동들과 원어민 강사,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함께하는 영어 체험 활동 중심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학습과 놀이,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풍성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수준별 영어 회화, 학습 멘토링, 노래와 댄스, 퀴즈, 오락 등 흥미로운 영어 프로그램

으로 구성됐으며, 참여 아동들은 원어민 강사,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

또한 더위를 식히는 물풍선 놀이, 감동적인 오케스트라 및 색소폰 공연 등 문화 체험행사도 포함된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즐거운 추억 형성을 도왔다

캠프를 주관하는 최은숙 센터장은 "아이들이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며, 자신감을 얻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캠프가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6일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2기 선착순 접수

김제시립도서관(시장 정성주)은 영·유아의 책과 첫 만남을 돕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하는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2기'를 진행한다

호응이 좋았던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전문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놀이 활동을 병행하며 부모들이 집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율동, 오감놀이, 책 놀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운영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총 4회로 진행되며 장소는 시립도서관 3층 채움터 1강의실이다.

참여 대상은 13개월부터 26개월 영·유아와 보호자 총 10가족으로, 오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해지는 경험을 통해 평생 독서 습관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알락꼬리마도요' 고창갯벌 이달의 새 지정

고창군이 8월 '고창갯벌 이달의 새'로 멸종위기 철새인 '알락꼬리마도요(학명 Numinus madagascariensis)'를 선정하며, 세계유산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러시아 북부(사할린섬, 캄차트카반도)에서 번식한 뒤, 남쪽으로 25000km를 날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월동하는 장거리 이동 철새다. 이들은 긴 여정 중 고창갯벌을 중요한 중간 기착지로 삼아 휴식과 먹이활동을 하며 에너지를 보충한다.

특히 이 대형 도요새는 길게 휘어진 부리와 긴 다리를 이용해 갯벌 속 칠게를 주식으로 사냥한다. 알락꼬리마도요의 부리는 칠게 서식굴과 유사한 깊이와 각도를 가지고 있어 굴 속에 숨은 칠게를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최적화된 형태를 자랑한다.

알락꼬리마도요는 8월부터 고창갯벌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먹이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축적한 뒤, 10월이 되면 다시 월동지인 호주와 뉴질랜드로 이동한다.

이 종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다. 지난 30년간 호주에서만 개체 수가 약 82%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위기(EN)' 등급으로, 우리나라는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고창갯벌은 전 세계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의 터전이다"며 "앞으로도 철새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세계유산에 걸맞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청소년 문화·감성 어울림 마당 '스쿨오버락' 성료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한 2025년 부안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스쿨오버락'이 지난 2일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에서 약 350명의 청소년과 부안군민이 참여해 열린 분위기 속에서 개최됐다.

공연에는 폴베레, 드림하이, 오름, 가스라이터, 무소유, 하모니언스, 가내수공업, 노이즈밴드, DB, 윈디 등 청소년 밴드 10팀이 참여했다.

각 팀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흥을 선사하고, 무대위 속에 지쳐있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밴드팀들을 응원한 교육청청년과 관계자는 "부안군은 청소년이 즐길만한 문화가 많이 없었는데, 청소년어울림마당과 같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많이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그간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국비 확보 전방위 활동 전개

기재부 제2차관 면담 주요사업 국비 반영 건의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2026년 국가 예산 확보 및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지난 1일 정성주 김제시장은 임기근 기재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김제시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한민국 유일의 특장차 선도 지구인 김제시 특장차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장차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과,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용지 정착농원

전여축사 매입사업의 시의성과 필요성을 피력하며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 내려 노력했다.

정 시장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9월 초까지 이어질 기재부 예산 심의에

서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공조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폭염대비 공공일자리아업 현장점검

19개 사업장·62명 근로자 대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일자리아업 참여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일까지 실외근무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아업을 중심으로 총 19개 사업장과 6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폭염에 가장 취약한 실외에서

근무하는 참여자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폭염 현장점검 내용은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폭염시간대(오후 2~4시) 근무시간 조정 등 탄력적 근무제운영, 근로 시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일자리아업은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은 만큼, 혹서기에는 무엇보다도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김제시, 다온마을 외 2개소 정주환경 개선

안길 도로 정비공사 추진 안정적 정착환경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주민들의 안전과 통행 편의 확보 및 쾌적한 마을 경관 등의 개선을 위해, 김산동 다온마을 외 2개소 안길 도로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공사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950m 마을 진입로 및 안길 구간에 아스콘 덧씌우기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9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포장면을 철거하지 않고 표면 정리 후 시공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되며, 다온마

을은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로 타 지역에서 김제시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에게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착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해 전북권 4대 도시로 준비하는 김제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고창군, 소비쿠폰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고창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수시 점검과 함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대 여부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특히, 지류형 고창사랑상품권의 경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심 거래를 모니터링하며 부정유통을 예방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의 대표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

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카드로 거래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등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황민안 고창군 생활력경제정책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회복을 중심으로 한 소비 활성화와 정책인만큼 부정유통 근절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국립고창치유의숲, 정상운영 총력

진입도로·기반시설 연내 완공 계획

고창군은 국립고창치유의숲 관련, 최근 법정분쟁이 마무리 되면서 올해 제1차유입도로와 기반시설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고창치유의숲은 지난 2023년 6월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제2차유입도로를 중심으

로 부분 운영 중이다. 제1차유입도로(운수선) 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한 민원인이 일부 구간을 컨테이너로 불법 점유하며 공사차량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른 법적분쟁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가 지연돼 주차장, 상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법적분쟁 소송에서 고창군

이 승소해 빠른 시일내 법적 절차에 따라 잔여구간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며 진입도로 및 기반시설을 연내 완공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사중지에 따른 행정적,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립고창 치유의 숲 제1센터의 정상운영을 최대한 앞당겨 군민과 관광객들이 치유와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아동 20명 대상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부안군은 최근 부안군 온가족센터에서 12세 이하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의 임영숙 강사의 강의로, 마약류 중독에 따른 악영향, 마약성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구분법 등을 포함한 내용을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됐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마약류·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는 마약류 중독 예방의 첫 걸음"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안군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 바이오기업, 베트남 수출 '청신호'

'코스모뷰티 베트남' 박람회 코빅스·씨에이·에스비씨 참가 MOU·LOI 8건 260만불 성과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2025 코스모뷰티 베트남 박람회'에 남원 3개 기업과 참가해 기업과 바이어간 MOU(양해각서) 및 LOI(구매의향서) 8건을 체결하고 260만 달러의 성과를 내며 수출가능성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뷰티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바이어 상담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연구원은 (주)코빅스, (주)씨에이, (주)에스비씨 기업과 함께 사전에 베트남 바이어 100명을 대상으로 상품리스트, 제품설명서 등을 배포해 관심을 가진 바이어가 박람회를 적극 방문하도록 준비해 큰 성과를 이뤘었다. 참가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박람회



지난달 24일~26일 베트남 최대 뷰티박람회에 남원 3개 기업이 참가해 260만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MOU·LOI 8건을 체결했다. <사진=남원시>

만 큼 많은 바이어를 만나고 구체적인 성과까지 나온 경우는 드물었고 성과에 크게 만족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뷰티시장은 세계 경제하방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미국 시장에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트남 시장은 건강과 미에 대한 관심증가 등 라이프스타일 중시 경향과 K-POP, K-CULTURE 등 영향으로

K-뷰티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뷰티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시장의 큰 기회요인이 되고 있다.

남원시는 이러한 세계 뷰티시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남원 뷰티기업의 수출지원을 통한 기업신장을 도모하고 중앙부처의 다양한 국비지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차매가정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대

100가구 추가 총 300가구 건강·돌봄 24시간 서비스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홀로 지내거나 부부가 모두 차매인 가정에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통합 운영체계 기반의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를 이달부터 100가구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차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 돌봄 서비스'는 차매에 걸리면 일 반적인 노년층이 받는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남원시만의 특 화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최신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10종의 스 마트 장비를 가정에 설치해 24시 간 동안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분 석하고, 개인별 누적 데이터를 바 탕으로 화재, 낙상, 여름철 온열질 환, 실종 등 다양한 응급상황을 사 전에 예측·감지함으로써 선제적

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위급 시 보건소와의 쌍방 향 의사소통으로 해결하고, 필요 한 경우 112·119 응급신고와 남원 시 통합관제센터와의 기관 간 연 계는 물론 '보호자 문자 알림 전송' 등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 능해 시민의 안전망이 강화된다.

이 사업은 2023년 동 지역의 100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면 지역의 100가구를 확대해 총 200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결과 작년 화재 감지와 방범 지원 26건, 응급상황 672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차매 환자 가정으 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에 시는 작년 돌봄·안전 체계 스마트화 사업으로 복권기금 325 백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달 100가 구를 추가 확대해 올해 총 300가 구에 24시간 스마트 건강·돌봄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시설관리공단 'ESG 실천' 폐전자제품 친환경 배출

남원시시설관리공단이 공단 내 전 부서에서 배출된 폐전기·전자제품을 친환경적으로 배출하며 자원순환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배출활동은 지난 6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가버너스와 체결한 'E-Waste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공단은 이번 배출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추진하고, ESG경영 실천과 자원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소형 전자제품까지 수거 대상을 확대해 군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과 첫 배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폐전자제품 재활용 촉진 ▲자원순환을 위한 공동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임직원 대상 ESG인식 제고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태 원주군수는 "이번 활동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자원순환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삼합' 미식관광 매출 1억 8천만원 돌파

전통장류 기반 미식 콘텐츠 지역 양식업 동반성장 효과

전통 장류의 본고장 순창의 대표 미식 콘텐츠 '순창삼합'이 미식관광을 통해 1억 8천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역 양식업과 외식업의 상생경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순창 전통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의 깊은 풍미를 바탕으로 한 '순창삼합'을 개발하여 관내 대표 식당 3곳(대궁, 녹원, 프란체)에서 선보였다. 출시 이후 약 10개월간 총 9,000여 명의 방문객이 순창삼합을 맛보기 위해 순창을 찾았으며, 누적 매출액은 약 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특히 순창삼합의 핵심 메뉴인 '매주 먹인 장어'는 선진관에서 직접 기른 고품질 장어를 사용해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장어 판매에만 6천만 원을 돌파하며 지역 양식업과 외식업의 성공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순창군은 상생 모델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우석대학교와 'RISE 지역상생협력사업'



순창의 미식콘텐츠 '순창삼합'의 누적매출이 1억 8천만원을 돌파했다. <사진=순창군>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9월부터는 장류 벨트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순창고추장볼고기', '순창삼합', '순창담은 초콜릿' 3대 대표 미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연계와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광주·전주 등 인근 주요 도시에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순차적으로

열어 '장맛 나는 순창'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고, 전국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전통 장류의 현대화와 미식관광 자원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상생 경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순창삼합에 이어 순창담은 초콜릿 등 순창만의 고유 미식 콘텐츠를 적극 육성해 국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K-미식 브랜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남원 이비티에스(ebts)협동조합 70~80대 어르신들의 독도 퍼포먼스가 공개돼 시민들에 감동을 안겼다. <사진=남원 ebts>

남원 ebts협동조합 어르신들, 독도사랑 '플래시몹'

독도서 퍼포먼스 영상 공개

태극기를 손에 든 어르신들이 푸른 동해의 섬 독도에 섰다. 빠르지 않은 울동 떨리는 손끝 하지만 그 발걸음엔 누구보다 뜨거운 국민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난달 27일 오전 이비티에스(ebts)협동조합 남원 어르신들의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영상속에는 80대 어르신들이 독도 현지에서 태극기를 손에 들고 울동을 펼치는 장면이 담겼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멘트와 함께 시작된 퍼포먼스는 빠른춤도 아니고

화려한 군무도 아니다.

다만 앞줄 리더를 따라 움찔 움찔 박자를 맞추는 어르신들의 움직임 하나 하나가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이날 독도 플래시몹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70~80대로 이비티에스(ebts) 남원지구 조합원들이다.

현장을 함께한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하기도 쉽지 않은 일정을 어르신들이 소화해 내신 것이라며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많은 시민들이 진짜 감동이다.이게 진짜 플래시몹이라며 극찬을 하고 있다.

시민 주도형 문화운동으로 평가 받고 있다. /남원=정하복기자

남원시, 중대재해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진단 컨설팅 접수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진단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이달 1일부터로 선착순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강화 흐름에 발맞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체로, 2025년에 신규 채용 인력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자부담 없이 전문적인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선착순으로 총 6개 기업이다. 지원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컨설팅 종료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누리집 또는 남원퀵스타트사업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인력난 해소

수요조사 이달 29일까지 최대 8개월 고용 가능

완주군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MOU협약 및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규모를 결정해 법무부에 신청한 후 최종 인원 확정에 따라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류(신청서, 고용주 준수사항 확인서 등)를 준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는 MOU협약 체결국인 필리핀·감비아에서 175명, 관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92명이 임국했고 9월 중 MOU 협약 체결국인 필리핀 말로시에 방문해 계절근로자 면접을 통해 우수 근로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수 근로자를 농가에 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공무원, 폭염 속 예초기 메고 제조 '귀감'

재산관리팀 한인주 팀장 '모범'

기록적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 한 공무원이 손수 예초기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어 칭송이 자자하다.

"여름이면 풀이 무성하게 금방 자라요. 예초작업을 하지 않으면 조성된 화초밭이나, 맨발길까지 풀이 무성해 운동하러 온 많은 주민분들이 불편해 해요. 그래서 새벽이나, 근무 시간 외 주말 등에 예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김팔·김바지·장화 착용과 일교 보호대를 하고 만가리 황톳길에서 예초 작업 중인 완주군청 한인주 재산관리팀장을 만났다.

한 팀장은 등에 무거운 예초기를 메고 땀을 줄줄 흘리며 황톳길 주변의 잡초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완주지역 낮 평균 기온은 35~38도에, 제값은도는 38~40도를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한 팀장의 예초작업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만가리 황톳길이 조성된 이후 지난해 한 팀장이 재산관리팀장으로 전보되면서 시작했다.

만가리 황톳길은 갈수록 예초작업 지역 범위가 확대되고 관리해야 될 꽃나무나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공무원들로 구성된 맨발의 청춘(회장 홍주) 회원 16명이 호미나 낫으로 제조 작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까지 이르렀다. 근무시간에 할 수는 없고,

타 직원들을 동원해 할 수도 없는 일 이어서, 평일 새벽시간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제조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맨발의 청춘 모임의 청일점인 한 팀장이 여쭙 수 없이 지난 봄부터 틈틈이 예초작업을 시작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인근 모야미래도 주민 K씨는 "주말 등 쉬지도 못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에 참 공무원상을 보여준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완주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에 만가리 황톳길이 쾌적하고 관리가 잘 돼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이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전문관리 인력이나 예산을 더 투입해 관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곤 기자

순창군, 집중호우 속 실시간 대응 군민 안전 확보

위험지역 주민 선제 대피 조치 군수 진두지휘 신속복구 마쳐

순창군이 지난 3일부터 4일 새벽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속에서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큰 피해 없이 위기를 넘겼다.

4일 오전 8시 기준, 순창군 평균 누적 강수량은 157mm, 풍산면은 최대 174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에 따라 8월 3일 오후 4시 50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같은 날 밤 10시 20분에는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잇따라 발효되었다. 이 경보는 4일 새벽과 오전 중 해제됐다.

순창군은 호우주의보 발효 직후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경보 발효 시 비상 2단계로 격상하여 215명의 공직자가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최영일 군수는 간부 공무원들과 단체 메시지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피해 예방 및 복구 지시를 내리는 등 집중호우 대응을 총괄 지휘했다.

군 산하 부서 및 읍면에서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주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인 만큼 침수 및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 24세대 33명을 선제적으로 대피시키고, 피해 조사와 동시에 복구 작업에 착수

했다. 아울러 세월고 11개소와 임시가설도로, 양지천·경천 진입로, 강천산 등 산로는 선제적으로 통제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5일 오전에는 전 공직자가 양지천 일대 산책로 등 복구 작업에 투입되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현장 안전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재난 관련 공직자들과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위탁가정 맞춤형 지원 '양육나침반' 운영

완주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위탁가정을 위한 '양육나침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아동간 건강한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위해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대상은 조부모, 친인척, 일반 가정, 전문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위탁부모 44세대와 함께 보호받고 있는 아동 54명이 대상이다.

양육나침반은 위탁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와 관련 스마트폰 및 도박중독 관련 교육, 긍정양육 상담카드 제공, 맞춤형 위탁부모 상담, 양육코칭, 위기상황 대응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아동발달 단계별로 구성된 긍정양육 상담카드를 중심으로 위탁가정의 개별적인 양육환경과 필요에 맞춘 1:1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과 함께 진행되는 양육코칭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에 맞는 양육기술을 익히고 위탁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하며, 나아가 부모와 아동 간 긍정적 상호작용 개선을 목표로 한다.

박기안 아동전화과정은 "위탁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 가을 농사준비 만전 맥류·감자 정부 보급종 공급

무주군이 올해 가을에 파종할 맥류(보리·호밀) 및 감자 정부 보급종 공급에 나선다.
무주군에 따르면 맥류는 오는 20일까지, 감자는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맥류는 곱보리(큰알보리1호), 쌀보리(흰찰쌀보리), 호밀(곡우)이며, 총 440kg이다.
곱보리 공급가격은 20kg 1포대 기준으로 소독·미소독 36,700원, 쌀보리는 소독·미소독 41,540원이다.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공급하며, 가격은 49,240원이다.
가을 감자는 총 5,000kg를 확보했으며 공급가격은 20kg 1상자 기준 수미는 32,880원, 두백은 37,600원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아이들과 즐기는 공연 '제2회 장수읍 아이조아 축제'

장수군 장수읍은 오는 8일 장수읍 누리파크 일원에서 '제2회 장수읍 아이조아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참여형 놀이로 구성된 풍성한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는 고고장구와 색소폰 연주로 문을 열고 기념식 이후에는 마술, 버블, 풍선아트, 번갈 등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체험부스에서는 스캐릭터 키링 만들기, △에코백·부채 꾸미기 △수경화초 심기 △페이퍼페인팅 △호루라기 키링 만들기 △타투 스티커 △캐릭터캐처 △소방안전체험(소화기·심폐소생술·재복입기) 등 10여종의 풍성한 체험활동이 운영된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아이와 나' 가족 노래자랑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장접수를 통해 선착순 10팀이 참가할 수 있으며 모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마이산 물놀이 축제 7,000여명 물려 성황

진안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아이들 방학을 맞아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 마이산 북부에서 개최한 '마이산으로 간 해적' 물놀이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약 7,000여명이 방문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46%가 전주 시민이었고 전북특별자치도내 15%, 도외에서 방문한 인원은 24%를 넘었으며 진안군 관내 방문객은 15% 정도로 집계돼 다녀 인기 피서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
행사장에는 11m 높이의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유아·어린이용 소형 슬라이드 2개를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했다.
군의 무더위와 안전 대응도 눈에 띄었다. 대형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여행자센터 내 키즈카페)를 마련하고 인조 잔디와 평상을 설치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으며, 상시 소독과 청소를 통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했다.
또한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발생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행사장을 찾은 한 관광객은 "아이들과 함께 DJ 파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오는 20일까지 신청 만 18세~74세 126명 모집

무주군은 지역 내 취업 취약계층 대상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환경 정비·정화, 터미널 환경정화, 시설관리 등 54개 분야 / 사업 기간 10. 1~12. 31.) 참여자 126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 대상은 만 18세(2007년 8월 4일 이전)에서 74세(1950년 8월 5일 이후) 미취업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 주민등록 거주 가족 합계 재산이 4억 원 미만인 무주 군민

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하면 되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직접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2회 연속 참여자와 중복 참여자, 1세대 2인 신청자, 직전 단계 포기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주·연차 수당과 교통(간식)비 5천 원은 별도 지급된다.
김성욱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무주군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에 총 11억 8천9백만 원을 투입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3차까지는 320명이 환경정비, 시설관리 등 149개 분야 사업에서 일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고된 기회, 알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부터 선정, 운영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무주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무주군 인구활력 과 일자리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3개 학교 숲 조성...친환경 학습 공간 마련

기림초·갈담초·대리초

임실군이 올해 학교 숲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사업 대상지로 임실기림초, 갈담초, 대리초가 선정되어 올해 4월에 착공하여 지난달에 완료했다.
학교 숲 조성 사업은 기존 학교 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학습·소통 공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갈담초등학교와 대리초등학교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류를 새로 심고, 임실기림초등학교는 기존에 식재된 수목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학습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산책로와 벤치를 설치해 학생들의 휴식과 여가 증진을 물론 학교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전경 <사진=임실군>

청소년들이 숲에 대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수목마다 표찰을 설치하여, 봄에는 작약, 여름에는 수국과 공조팝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학교 숲으로 재탄생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5 쿨벨리 트레일레이스' 성황리 개최

이형모·김해주 선수 1위

장수군에서 지난 2일 열린 '2025 쿨벨리 트레일레이스'가 전국 각지에서 모인 695명의 트레일러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18.8km 단일 코스로 오전 8시 장수종합경기장을 출발해 동촌리고분군, 마봉산, 논개활공장, 사두봉능선 등 장수의 대표적 자연 명소를 경유한 후 방화동 생태길을 지나 방화동 자연휴양림으로 끝나는 코스로, 제한 시간은 6시간이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남자부에서는 이형모 선수가 1시간 48분 29초로 1위를 차지했고, 김수용 선수(1시간 50분 34초), 박윤하 선수(1시간 56분 22초)가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서는 김해주 선수가 2시간 10분 53초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권보경 선수(2시간 21분 33초), 전아현 선수(2시간 26분 21초)가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같은 기간 열린 '제3회 장수 쿨벨리 페스티벌'을 함께 즐기며, 방화동 휴양림의 계곡물 아이싱 체험과 물놀이 프로그램, 벨리밤 공연 등 다채로운 여름 이벤트를 통해 무더위



를 식히고 축제의 재미도 만끽했다.
락연된 김영록 대표는 "장수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본 대회를 국내 대표 트레일러 대회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참가자들이 장수를 찾아와 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장수의 청정 자연과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장수는 사계절 내내 트레일러를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만큼 다가오는 9월 개최되는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와 10월 '제2회 캐니크로스 장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하반기에도 두 차례의 트레일러링 행사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6회 장수 트레일레이스'에서는 국내 최초 100마일(약 173km) 코스를 신설해 국내 메이저 산악 레이스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18일에는 반려견과 함께 달리는 이색 트레일레이스인 '제2회 캐니크로스 장수'도 개최될 예정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선언식

전춘성 군수 등 30명 참석 청렴진안 실천 다짐

진안군은 4일 군청 강당에서 '2025년 간부공무원 청렴 실천 선언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언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30여 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기고 부패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로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선언식 이후 진행된 청렴 회의를 보고회에서도 부패취약분야 개선 방안, 반부패·청렴 실천 계획 점검 등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는 "공직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청렴"이라고 강조하며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실천 의지를 갖고 모범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면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과 함께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진안으로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노인 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입상

임실시니어클럽 장려상 수상 일터이음 동행단 제안 사업

임실시니어클럽(관장 김윤호)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5년 신규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상(장려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노인이 수행하기에 적합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발굴하고자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39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임실시니어클럽이 장려상의 수상하는 쾌

를 이뤘다.
김윤호 관장은 "일터이음 동행단(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니터링)이라는 제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게 창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노인 일자리는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아쿠아 페스티벌 맞아 기부 참여 이벤트

10만원 이상 기부 시 자동응모

2025 임실방문의 해에 열리는 아쿠아 페스티벌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임실군이 신나는 물놀이 축제와 고향사랑기부금을 연계한 특별한 플라보 이벤트를 전개한다.
군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열리는 2025 아쿠아 페스티벌을 기념하여 3주간 '고향사랑기부 참여이벤트'를 한창 진행 중이다.
올해 아쿠아 페스티벌은 초대형 돔 그늘막과 스릴 만점의 대형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한 다채로운 워터존과 어린이가 완비된 휴게공간 및 어린이 DJ 파티, 케이팝 댄스 퍼포먼스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으며 인기 절정을 구가하고 있다.

이를 기념하여 군은 이 기간에 임실방문의 해를 알리고, 아쿠아 페스티벌의 흥행,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이벤트를 추진 중으로,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는 자동으로 응모된다.
군은 아쿠아 페스티벌이 끝나는 10일까지 행사를 진행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명을 선정, 1만원 상당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8월 중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임실군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및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https://imsillove.kr/) 또는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팀별 비전·전략과제 공유...조직 경쟁력 강화

무주군이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군민행복을 높이기 위해 각 팀별 비전과 전략과제를 수립, 7월 30일과 31일, 8월 4일 3일간 '비전 및 전략과제 보고회'가졌다.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청 내 127개 팀장들이 팀별 비전 등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트릭유산 및 향로산 자연휴양림 연계 치유관광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아웃도어 산업 연계 레저 관광 활성화, △낙화놀이 및 태권도 퍼포먼스 주말 상설 운영 등이 거

론됐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실현, △아동친화도시 실현, △돌봄 관련 자격증 취득반 운영, △무주공동 육아문화센터 구축 등이 공유됐다. 산림 분야는 △임업 분야 전문 교육 과정 신설, △트릭유산 산림레포츠 거점 조성, △트릭유산 둘레길 투어로드 조성 등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비전과 전략과제들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군민이 체감하는 무주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무허가미사육 축사 일제 정비 나서

악취 등 환경오염 사전 예방

진안군이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관내 무허가 축사 및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축사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그간 인허가만 유지된 채 실질적인 사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축사는 악취 유발과 관리 부실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는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하

나, 수년간 방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수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 폐쇄 명령 등 단계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시설 △축사가 철거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등이다.
군은 대상 시설의 허가 여부와 실제 사육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동향면 박천창 씨, 진안군에 장학금 기탁

진안군 동향면 박천창(진안고원협동조합 대표) 씨가 지난 2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지난해 12월에 이은 두 번째 기탁으로...

정중복도의원, 폭염에 지친 취약계층에 생필품 전달

“따뜻한 공동체 만들겠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중복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은 지난 7월 30일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일대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혜자와 봉사가원이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인 물품과 정서 지원을 이어가는 ‘희망풍차’ 사업의 봉사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봉사원들의 인도주의 정신과 지속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장정철 기자



완주군 고산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환송식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손병철)은 4일 공공형 계절근로자 30명이 마지막 귀국길에 오르며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고산농협은 지난 3월 필리핀 미나시 계절근로자 3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출국 환송식을 열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주시, 무더위속 이웃 지키는 안전지킴이 ‘출범’

무더위 안전지킴이 발대식

전주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무더위속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지킴이가 돼주기로 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경진 센터장)는 4일 센터 1층 이웃사촌방에서 센터에 등록된 12개 자원봉사단체 회원, 전주지역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및 사무국장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무더위 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참여 단체 복지기관 소개 △활동 취지와 폭염 대응 안내 △자원봉사활동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촉된 자원봉사단체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철 위기 대응 활동인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과 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안내, 과일 및 얼음생수 나눔, 여름보양식 및 여름나기용품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남원 주요관광지서 얼음물 나눔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은진)는 지난 2일 남원 주요 관광지인 광한루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남원의 매력을 알리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얼음생수 무료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제공하며 남원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안 한재길 행정복지국장 등 2명, 장학금 500만 기탁

진안군청 한재길 행정복지국장은 4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 기탁은 진안군청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들이 지역사회의 깊은 책임감을 바탕으로 진안군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박동현 국장은 “지역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진안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 마 보태고 싶었다”라고 덧붙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이영희 씨, 군산 행정복지센터에 라면 기탁

군산 세노야 봉사단 후원자인 이영희씨가 4일 소룡동행정복지센터(동장 이건실)에 라면 21상자(80여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영희씨는 군산 세노야 봉사단에도 매년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어 지역사회 공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소중한 은정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이영희 씨의 나눔실천이 지역에 작은 불씨가 되어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사를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장수군 천천면, 경로당 어르신에 복달음 음식 나눔 행사

장수군 천천면은 중복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특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독거가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천천면 대표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30여 명에게 삼계탕과 수박 등 복달음 음식을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장수=최진수 기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수해 피해 주민에 밥차 지원

익산의 따뜻한 밥차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산청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에 4월 ‘사람의 밥차’를 긴급 파견하고, 이재민과 수해 복구 인력을 위해 무료급식을 지원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for recycling. Title: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 이렇게 버려요! (Recycling is difficult, dispose of waste like this!). It shows examples of bulky waste (large suitcases, strollers, umbrellas) and small hazardous waste (broken glass, light bulbs, newspapers) and how to dispose of them through a website and recycling bins.

〈一事一言〉



조국 사면은 상식과 정의 회복의 출발점이다

김관춘
논설위원

광복 79주년을 맞는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복권 여부가 다시금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단행 되는 사면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 사면은 단순한 절차적 사면을 넘어 시대적 정의와 사회적 공정, 사법적 책임의 의미를 짚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를 가장 격렬하게 갈라놓은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명확해지는 것은, 그가 입은 피해가 정치 검찰과 이에 동조한 일부 법관들이 협력한 '표적 수사'의 산물이었으며, 공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과 그의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전형적인 정치보복의 사례였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검찰은 당초 '사모펀드 비리'라는 권력형 부패 의혹을 내세워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원 장도, 장관도 아닌 한 민정수석 출신 교수의 가족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수사인력을 동원했고, 수사속도는 전광석화였다. 그러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다. 실제 없는 '권력형 비리'라는 프레임은 결국 거품처럼 사라졌다. 검찰은 이내 입시 비리, 검찰 무마 등 새로운 혐의의 과녁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물론, 당시 의대생이던 딸 조민 씨까지 피의자로 몰아 법정 에 세웠다.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정 교수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고 조민 씨는 벌금형과 함께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의사면허 취소라는 이중삼중의 제재를 받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수사과 재판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자랑하던 '비례성'과 '적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데 있다. 수사 규모와 내용, 기소 방식, 재판의 논리적 결론 모두가 사법 정의의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은 국내외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법원조차 "자녀 입시 비리는 주로 정경심 교수가 주도한 범행"이라고 판시했음에도, 조 전 장관에게 별도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 검찰 무마 사건에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추상같은 검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2년형이 더해졌다. 도대체 문명국가 어느 나라에서 '추상같이 않은 검찰'이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되는가.

대조적으로, 최근 내란 기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력과 재판장에게 제기된 항응 접대 의혹 등에는 사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지귀연 판사에 대한 항응 접대 의혹은 언론을 통해 수개월 전부터 공론화됐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동일한 법적 기준이 권력 성향과 정치적 위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을 둘러

싼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입시 제도를 교란하고 검찰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은 김태우 전 검찰관의 사면 사례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김 전 검찰관은 실형 선고 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돼 곧바로 서울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낙선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자 보호 차원"이라며 정당화했다.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출마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와 공정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닌가. 윤석열 검찰과 이에 동조한 법원의 '해도 너무한 짓'은 사실 조국 사면으로 시작됐다. 독재정권들이 언제나 '법치'의 탈을 쓰고 정적을 제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은 죄'와 '만들어진 죄'를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은 개인 구제가 아니라 국가의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정비의 일환으로 바라봐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면을 촉구하는 여론은 단순한 지지층을 넘어서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 법조계 전반에서 확산되고 있다. 박상기 전 장관을 비롯한 법학교수 34명이 사면 복권을 요청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전주교 광주대 교구 육현진 대주교도 동참했다. 국회의장 등 정치권이 조 전 장관을 면회했으며, 그 사면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를 표

출한 바 있다. 이는 특정 진영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시대적 양심이 모인 목소리다.

사면은 제약적 권력의 상징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면은 '법률이 도달하지 못한 정의'를 회복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정치적 보복의 희생자, 법적 비례성의 파괴에 의해 타격을 입은 인물에게 다시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부여하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이 공정함을 회복하고, 사법 시스템이 정의의 보루로서 다시 설 수 있음을 선언하는 정치적·사회적 제스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하여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명예 회복이 아니라, 왜곡된 사법의 바로잡음이며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과거의 정치 보복 공화국이 아니다. 시대는 공정과 상식을 원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바로 그 상식의 회복이며, 정의가 부활하는 서막이 될 것이다.

사설

공천=당선의 폐해, 소속 정당이 책임져라

전북지역 기초 및 광역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위 행위로 비난을 사고 있다. 수년간 반복돼 온 이권 개입, 출장비 부풀리기, 리베이트 수수, 해외 연수 부실 등의 고질적 비위가 사정당국의 수사 착수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은 현재 도내 11개 시군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일부 의원과 의회 직원들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여서 지방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일부 의원의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이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둔갑하며 구조화된 부패시스템이며, 말기적 증상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지방의회 전체를 썩먹고 있는 고질병이다. 외유성 해외연수, 예산 부정 사용, 리베이트 수수 등은 '세금 유용의 전시장'이란 조소까지 낳고 있다. 도민 혈세로 출장을 가면서도 자기 돈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는 정치인의 책무는커녕 최소한의 양심마저 실종된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 다.

이번 사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 무감각함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비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고, 제대로 된 징계조차 받지 않는 풍토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공천=당선'이라는 구조 속에서 정당 책임이 부재한 점도 근본 원인 중 하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지난 수십 년간 전북 지방의회를 독점해 온 상황에서, 공천 과정에 대한 책임과 자성이 시급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 개편이다. 먼저, 각 지방의회는 국외연수 및 출장비 사용 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투명성 확보 없이는 도민 신뢰 회복도 없다. 연수보고서 역시 형식적인 통과용 문서가 아니라 실질적 평가가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정당 차원의 자성도 요구된다. 각 정당은 소속 의원의 비위에 대해 책임지는 구조를 갖춰야 하며,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당내에 윤리감시기구를 상설화하고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천 책임제를 명문화하고, 비위 발생 시 정당이 먼저 책임지고 사과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정당이 지방의회 비리를 수수방관하거나 숨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지방정치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수사당국은 이번 수사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가벼운 처벌이나 보여주기식 제재로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 부패 의원은 즉각 제명하고, 향후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방의회다. 하지만 지금 전북의 지방의회는 스스로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렸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의회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전면적인 정화와 인적쇄신 없이 전북 정치에 내일은 없다. 각 정당과 지방의회는 이번 위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도민 앞에 땀뻗한 정치, 청렴한 의회를 향해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

문화재 열전



화암사 중창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지정일 - 1981년 4월 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
길 271 (가천리)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인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경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8-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말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법칙 / 류근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허공에 흩어진다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구름에 매달린다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빗방울 하나가 죽어서
빗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허공에 흩어진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앞사이에 매달린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물방울 하나가 살아서
물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인다
사는것도 죽는것도
한 몸
우주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

시인 약력 : 1966년 경북 문경 출생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이

로 등단했다. 이후 작품 발표를 하지 않다가 등단 18년 만인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

에 의해 불렀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미래를 향해, 진실만을 보도 합니다.

https://www.jeonbuktimes.co.kr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0, 구독신청 282-9603

시민의 삶 모든 순간에 스며든 건강, 행복도시 정읍의 '츰츰한 건강 안전망'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꿈꾸는 목표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의료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그 꿈을 실현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정읍시가 시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츰츰하고 선제적인 건강 정책을 펼치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의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의 시니어 의사 채용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치매 관리 시스템까지, 시민의 삶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정읍시의 혁신적인 노력들을 조명한다.

전국 최초 시니어 의사 채용 시민이 직접 참여한 맛집 발굴 치매안심센터 운영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정읍시 역시 15개 읍·면 보건지소 중 10개소를 5명의 공중보건직사가 순회 진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는 곧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시는 2024년 11월, 풍부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의사를 '시니어 의사'로 채용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를 단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시니어 의사와 지역 주치의제 운영 이후, 보건지소의 진료 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 의과 진료까지 담당이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를 보였으며, 처방 가능한 약품 종류도 기존 4종에서 약 30종으로 대폭 확대돼 보다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시니어 의사는 단순히 진료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는 만성질환 집중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진정한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러한 성과는 보건복지부의 주목을 받으며 지역 공공의료 정책의 모범 사례로 전국에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이었던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어린이 전용 병동'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평일 야간에도 소아청소년 응급환자가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되면서, 더 이상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부모들이 밤새 발을 동동 구르거나 인근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

안전한 먹거리부터 마음 건강까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정책

건강한 삶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 마음의 평온함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한 일상이 가능하다. 시는 시민의 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급자 중심의 맛집 선정이 아닌, 시민이 직

접 참여하는 '찐 맛집 찾기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정읍 맛집 내돈내산 탐방기 이벤트'를 통해 숨은 맛집을 발굴하고 음식 관광을 활성화한다. 동시에 주방 환경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등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영세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등급제 컨설팅, SNS 마케팅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음식점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들의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여름철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역 사업에도 혁신을 더했다. 기존에 살충제와 혼합해 연막을 피우던 경우를 물로 전면 교체하는 '친환경 방역'을 실시, 환경오염을 막고 예산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자립과 회복을 돕는 '샘초롱 클럽하우스'를 개소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부터 사례관리, 일상생활·취업 훈련, 자립 체력 주택 운영, 동료지원가 양성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들이 온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초고령사회 해법, '치매안심도시 정읍'에서 길을 찾다

정읍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는 치매 환자 증가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겨줬지만, 시는 이를 위기가 아닌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 기회로 삼고 있다. '치매관리 제대로! 안심정읍 대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들은 조호물품, 맞춤형 사례관리, 배회 가능 어르신을 위한 인식표 발급 및 지문 등록, 119 안심콜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빈틈없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치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돌봄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 1000명에게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가 각인된 '실종예방 목걸이'를 지원하는 사업은 기부자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가장 필요한 곳에 연결한 창의적인 정책으로 평가받

는다.

시의 치매 안전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촘촘하게 확장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신대인읍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개소해 북부권 주민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연지동을 제5호 '치매안심마을'로 신규 지정해 마을 단위의 집중적인 조기 검진과 지원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치매가 더 이상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보듬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치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아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들은 단편적인 사업의 나열이 아니다. 의료, 환경, 복지, 안전 등 각 분야의 정책들이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시의 촘촘한 건강 안전망이 인구 위기와 고령화 시대를 헤쳐나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